

[홍콩, 2013년 8월] [농식품]

1. 홍콩 식품 이슈

□ 홍콩 도축장 슈퍼 박테리아 검출

- 홍콩 도축장서 아시아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는 슈퍼박테리아 검출되었음. 이 슈퍼 박테리아에 감염될 시 사망률이 40~70%일 정도로 치명적임
- 홍콩 언론은 금년 7월 29일 홍콩대 연구팀의 발표내용을 인용해 2013년 1월 홍콩 북부 상수이(上水)지역의 도축장 돼지표본에서 항생제 내성균인 반코마이신 내성 장내구균(VRE)이 발견됐다고 보도
- 슈퍼박테리아를 발견한 허바이량(何柏良) 홍콩대 부교수는 “홍콩과 중국 본토 돼지 농가의 항생제 사용증가에 따라 항생제 내성균이 출현했을 것”이라면서 “돼지고기를 익혀 먹지 않거나 감염된 가축과 접촉하면 사람에게도 슈퍼박테리아가 감염될 수 있다”고 설명함

□ 중국 광동성 집중호우로 홍콩 야채 상승

- 중국 광동성 지역에 폭우로 인해 지역의 채소 가격인상으로 홍콩의 채소가격 상승
- 홍콩 완차이 시장의 양배추, 배추, 호박 등의 가격이 2~3% 증가하였으며, 야채 업자들은 야채 가격의 안정이 최소 2주가 지나야 안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가장 영향이 큰 품목은 까이란(芥蘭) 등 뿌리채소가 최고 50%까지 가격 인상이 있었으며, 오이, 호박 등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음

□ 홍콩서 재배한 친환경 쌀 판매

- 환경단체와 정부보조금으로 홍콩의 비옥한 논에서 재배된 현미가 식탁에 오르고 있음. 재배 장소의 이름을 딴 “롱밸리 친환경쌀(Long Valley eco paddy rice)”은 홍콩 상수이의 가장 큰 담수 논에서 재배되고 있음
- 그러나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쉽게 구입할 수는 없으며, 8월초에 추수한 수확량은 벼의 상태로 1,500kg 밖에 되지 않음
- 쌀 1kg 가격은 64달러로 일반 쌀 가격보다 비싸며, 기본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소량 생산되기 때문이지만 프로그램의 주목적은 생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대가는 지불해야 한다고 관계자가 언급하였음

2. 농식품 수입동향 및 전망

- 식품가격 인상 및 재고 확보로 인하여 7월말까지 홍콩 농수산물 수입액은 US11,863,152천불로 전년 동기대비 9.5% 증가
- 신선/냉장/냉동의 쇠고기는 US 840,546천불 수입되어 전년 동기대비 96.5% 증가
 - 기존 비축 쇠고기 소진 및 중국산 쇠고기의 불안정한 공급을 대비하여 브라질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증가
- 쌀은 US185,873천불 수입되어 전년 동기대비 7.7% 증가

○ 베트남 쌀 가격 인하로 수입상들이 재고확보를 위하여 베트남 쌀 US 51,291천불 수입. 전년 동기대비 24.0% 증가

□ 초콜릿 및 코코아 첨가제품은 US 163,414천불이 수입되어 전년 동기대비 수입액 31.5% 증가

○ 초콜릿에 사용되는 유제품, 설탕 등 원재료 가격인상으로 초콜릿 가격 인상

□ 인삼은 US134,734천불 수입되어 전년 동기대비 수입액 55.5% 증가

○ 중국의 제비집 수입이 금지되어, 대체 보양식품 수요 증가

□ 신선/냉장의 엽채류는 US 131,085천불 수입되어 전년 동기대비 27.8% 증가

○ 중국의 뿌리채소 흉작으로 인한 가격상승으로 비교적 저렴한 엽채류 수요 증가

□ 농수산물식품 수입동향

(단위: 천US, %)

SITC 코드	구분	7월 당월		1-7월 누계	
		금액	전년대비 (%)	금액	전년대비 (%)
012	신선/냉장/냉동의 기타 육류 및 내장	353,656	48.6	2,107,381	-7.6
057	신선/건조의 과일 및 견과류	171,589	-14.3	1,857,476	6.9
022	우유, 크림, 유제품	111,056	26.4	856,309	30.0
011	신선/냉장/냉동의 쇠고기	171,469	185.8	840,546	96.5
098	기타 가공식품류	107,067	1.7	695,692	7.0
017	신선/냉장/냉동의 어류	82,303	28.9	565,832	20.8
111	비알콜 기타 음료	70,485	12.9	457,424	10.6
048	녹말 등의 곡류	49,844	21.5	321,610	17.0
139	돼지고기	35,958	-2.7	244,093	-4.8
042	쌀	20,577	-0.2	185,873	7.7
073	초콜릿 및 코코아 첨부제품	18,193	7.2	163,414	31.5
29242	인삼	10,170	78.6	134,734	55.5
05453	신선/냉장의 엽채류	18,897	13.9	131,085	27.8
056	가공/절임채소 및 뿌리	19,786	34.0	126,759	5.2
02510	신선/조류 계란	18,271	8.4	108,526	19.4
합계		1,697,388	19.7	11,863,152	9.5

※ 자료 : 홍콩무역국(HKTDC) 수출입통계 자료

□ 주요 품목 수입동향

(단위: 천 US, %)

품목	'12.5	'13.5	증감률	1위		2위		3위		한국산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인삼	86,646	134,734	55.5	캐나다	89,872	한국	25,142	미국	9,119	25,142
자당류	87,808	70,598	-19.6	한국	34,032	태국	12,514	중국	10,913	34,032
라면	55,866	61,397	9.9	중국	21,623	일본	12,596	태국	8,725	7,401
맥주	55,801	61,269	9.8	중국	21,309	한국	17,212	베트남	5,527	17,212
버섯	6,778	8,778	29.5	중국	2,304	한국	1,806	말레이시아	1,287	1,806
절임 채소	5,174	4,864	-6.0	한국	1,374	중국	644	태국	578	1,374

※ 자료 : 홍콩무역국(HKTDC) 수출입통계 자료

□ 인삼 : '13. 7월말까지 인삼 수입액은 US117,424천불로 전년 동기대비 51.7% 증가

○ '13년 캐나다 화기상 흉작으로 화기상 가격인상

- 캐나다 화기상 수입액은 US89,872천불로 전년 동기대비 65.1% 증가

○ 한국산은 정관장 재고 소진 및 신규 업체 취급 증가(관자삼, 천경삼 등)로 US 25,142천불 수입되어 전년대비 41.9% 증가

□ 자당류 : 7월말 수입액은 US 70,598천불로 전년 동기대비 19.6% 감소

○ 국제 원당가격 하락으로 전체 수입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수요부진으로 물량도 감소추세임. 한편 가장 수입액이 많은 한국산은 US 34,032천불로 전년 동기대비 23.3% 감소

□ 라면 : 7월말 라면 수입액은 US 61,397천불로 전년 동기대비 9.9% 증가

○ 신라면 선물세트가 인기를 얻어 한국산 라면 수입액은 US 7,401천불로 전년 동기대비 15.2% 증가

○ '13년 상반기에는 태국을 제치고 라면 수출국 3위 차지하였으나, 하반기 태국산 수입액이 증가하여, 4위로 하락

□ 맥주 : 7월말 맥주 전체 수입액은 US 61,269천불로 전년 동기대비 9.8% 증가

○ 하이트 흑맥주, D Dry 등 신규 브랜드 인기 상승 및 Blue Girl(한국산 OEM맥주) 판매 매장 증가로 한국산 맥주 수입액은 US 11,137천불로 전년 동기대비 26.9% 증가

□ 버섯: 7월말 버섯 전체 수입액은 US 8,778천불로 전년 동기대비 29.5% 증가

○ 6월까지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한국산 버섯이, 부실 포장, 원형손상 등으로 소비자 구매가 줄자 중국산 버섯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되었음

○ 한국산 수입액은 US1,806천불로 전년 동기대비 9.4% 감소

○ 중국산 수입액은 US2,304천불로 전년 동기대비 149.4%증가

□ 절임채소(김치): 7월말 절임채소 전체 수입액은 US 4,864천불로 전년 동기대비 6% 감소

○ 전체 절임채소는 6% 감소를 나타내고 있으나 한국산은 인지도 상승, 프로모션 확대 등으로 금년 7월까지 US 1,374천불 수입되어 27% 증가하였음

3. 농산물 동향 분석 (인삼)

□ 생산

- 홍콩은 자체적인 인삼 생산량이 없어 전체 소비량을 수입에 의존

□ 소비

- 고가의 홍삼과 원삼 형태인 저가인 서양삼(화기삼)으로 구분되어 판매되고 있음
- 인삼의 용도는 주로 탕(湯), 차, 분말형태로 복용함
- 40대 이상 반복 구매 고객 이외에는 홍삼을 직접 구매하여 복용하는 경우가 드물며 높은 가격 때문에 주로 선물용으로 많이 사용됨

□ 홍콩 인삼 수입동향

(단위: US천불, %)

순위	수입국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7월	
		수입액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1	캐나다	56,812	65,858	15.9	69,649	5.8	89,872	65.1
2	한국	29,509	40,084	35.8	24,045	-40.0	25,142	41.9
3	미국	48,403	27,632	-42.9	27,991	1.3	9,119	5.5
4	중국	577	1,479	156.3	4,723	219.4	5,808	260.9
5	말레이시아	352	4,436	..	5,221	17.7	2,545	-10.1
합 계		137,963	141,701	2.7	134,100	-5.4	134,734	55.5

= 무한대 *극소 @자료 없음 ..1000% 이상 상승

※ 자료 : 홍콩무역국(HKTDC) 수출입통계 자료

- '13년 7월까지의 홍콩 인삼 수입액은 US134,734천불로 전년 동기 대비 55.5% 증가
 - 전반적으로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하여 홍삼 및 화기삼의 가격 대폭 증가
- '13년 캐나다 화기삼 흥작으로 화기삼 가격인상
 - 캐나다 화기삼 수입액은 US89,872천불로 전년 동기대비 65.1% 증가
- 동방홍(관자삼), 천경삼, 한인홍 등 신규 브랜드 런칭, 정관장 재고 소진 등으로 한국산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7월말 현재 US25,142천불 수입되어 전년 동기대비 41.9%증가
- 고가의 한국 홍삼의 대체품으로 저가의 중국삼이 홍콩에 많이 수입되기 시작되어 중국산 수입액은 US5,808천불로 전년 동기대비 260.9%인상

□ 홍콩 인삼 재수출동향

(단위: US천불, %)

순위	수입국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5월	
		수입액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1	중국	4,882	4,222	-13.5	4,830	14.4	7,009	431.7
2	캐나다	5,376	7,342	36.6	6,454	-12.1	4,351	3.2
3	베트남	748	268	-54.1	640	138.5	4,230	..
4	미국	5,711	5,749	0.7	6,083	5.8	3,549	-7.5
5	싱가포르	4,419	3,634	-17.8	3,538	-2.6	2,200	4.7
합 계		27,125	29,530	8.9	28,200	-4.5	25,722	64.6

= 무한대 *극소 @자료 없음 ..1000% 이상 상승

※ 자료 : 홍콩무역국(HKTDC) 수출입통계 자료

- 홍콩으로 수입된 인삼의 일부는 재수출되고 있으며 정식으로 재수출이 되는 물량과 중국 관광객들이 선물용으로 구매해 가는 물량이 비슷한 수준임
- 캐나다, 미국으로는 한국산과 중국산 홍삼이 주로 많이 재수출되고 있으며, 보통 화교 들을 위하여 재수출되고 있음
- 싱가포르, 베트남 경우에는 화기삼을 수입하여 약재료로 주로 사용함

□ 홍콩 인삼 판매가격

		
원산지 : 한국	원산지 : 한국	원산지 : 중국
품목 : 정관장 地삼 20支 (300g)	품목 : 官字蔘 地삼 20支 (300g)	품목 : 중국산 홍삼 (305g)
가격 : HKD 5,160	가격 : HKD 4,233	가격 : HKD 768

□ 판매현황

- 가공된 인삼제품은 일반 약국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뿌리삼은 약재거리인 성완(上環)에서 소비자들 많이 구입함
- 화기삼은 벌크형식으로 판매를 하거나, 플라스틱 봉지에 패키징하여 판매함. 중량으로 보통 가격을 정함
- 한국산 홍삼은 천, 지, 양, 절편의 형태로 캔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음
- 중국산 홍삼은 소비자들 먼저 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가, 소비자가 원하는 삼을 즉시 포장하여 판매함

□ 한국산 수입 증감사유

- 한국산 인삼의 효능에 대하여 현지인들도 많이 알고 있으며 가격은 다소 비싼 편임
- 정관장 이외에 비교적 저렴한 브랜드가 판매되기 시작되며 한국삼 수요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

□ 시사점

- 주로 한국산 인삼 마케팅이 뿌리삼 위주여서 비교적 저렴한 인삼가공품이 있다는 점을 소비자들은 잘 모르고 있음
- 쉽게 복용할 수 있는 인삼가공품을 홍콩의 약국 체인점에서도 판매도 권장

<저작권자 ©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kat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